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준



화순 박순철

담양군,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

27개 마을서 농기계 수리 · 안전사용 교육



담양군은 교통이 불편한 마을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을 운영해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봉사반은 농기계교관 1명과 전문

수리요원 3명으로 구성해 18일 고서면 덕촌·남면·무동·인암·기암·용면·성태·미을 40여 대의 농기계 수리를 시작으로 27개 마을을 순회하며 농기계 수리 봉사를 진행하고 있

다.

이와 함께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고자 농기계 관리요령 전수와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병행한다. 수리대상 농기계는 예취기·동력실분무기·엔진톱·관리기 등 소형농기계로 농업인은 부품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트랙터·경운기 등 중·대형 농기계는 현장점검을 통한 고장진단 및 간단한 경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으로 농기계 수리부담을 덜어 적기 영농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봉사반 운영 중에 나타난 문제점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며 밝히며 최신 수리장비 확보로 농업인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농업복지 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지원 기획처 (061-380-3434)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제23회 여수향일암일출제 개최

오는 31일~1월 1일 탐방객 참여 프로그램 다양



전국 4대 관음기도처 중 한 곳인 여수 향일암에서 기해년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일출제가 열린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향일암일출제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돌산 임포미을 일원에서 진행된다.

향일암은 많은 소원이 이뤄진다는 관음기도처일 뿐 아니라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를 오롯이 볼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다.

시는 올해 축제의 주제를 '새 빛! 새 희망! 향일암 일출! 로 잡고 탐방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시작은 금오산 정상에서 보는 해

등 일출명소로 사랑받는 곳이 많다.

오동도는 항일암 뒷지 않게 일출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다. 일출광경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일출 감상 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오동도 산책로를 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술목 해수욕장에서는 봉돌과 함께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다. 형제삼인 죽도와 협도 사이에 떠오르는 해의 모습을 담으려는 사진작가들의 방문도 이어진다.

검은모래로 유명한 만성리 해수욕장도 새해 첫날이면 많은 인파로 북적인다. 만성리 해수욕장 앞에는 대형 선박이 정박해있기도 한데 선박 위로 떠오르는 해의 모습도 독특한 매력을 자아낸다.

시는 올해 오동도, 무술목, 만성리를 포함해 총 25곳에서 분산일출제를 개최해 탐방객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향일암일출제와 분산일출제 정보는 여수시 관광문화홈페이지 (www.yeosu.go.kr/tou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완도군, 동계 전지훈련지로 인기

온화한 기후 · 깨끗한 자연환경 등 좋은 조건 갖춰



지난 18일 안성시청 테니스 팀과 전구 팀을 시작으로 내년 1월 본격적으로 동계 전지훈련 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선수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체육시설과 수련시설,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하는 중이다.

이번 동계 전지훈련 참가 팀은 축구, 테니스, 농구, 야구, 억도 등 5개 종목에 67개 팀이며 지도자 및 선수가 1,300여 명, 동행하는 학부모까지 포함하면 2,000여 명이 된다.

이는 관광 비수기를 맞아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혜택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완도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양자유산업의 일환으로 해양 치유센터 등 인프라가 구축되면 재활 치료가 필요한 운동선수들이 많이 찾게 됨으로써 완도는 동계 훈련의 최적지이자 스포츠 의료 부문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훈련 팀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해양자유산업과 연계한 체육인 교육 센터 유지 등을 통해 우리 완도가 스포츠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장흥군, 2018년 전남도 친환경농업 '대상' 수상

친환경농업 확산 위해 실천농가 지원책 확대 실시

장흥군이 2018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평가에서 차지단체 분야 '대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이 부문 '우수상'에 오른 장흥군은 2006년 '대상' 수상 이후 12년만에 정상 탈환에 성공했다.

이번 수상으로 전남도 친환경농업 1번지란 타이틀을 얻게 된 장흥군은 사업비 8천만 원도 함께 확보했다.

군은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군정 역점 업무로 선정해 추진해 왔다.

유기농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꾸준히 확대해온 결과 올해는 지난해(2,615ha)보다 11.7% 증가한 2,922ha의 인증면적을 확보했다.

그 중 유기인증면적은 99ha로 전년(842ha) 대비 18.3%로 증가했

으며, 벼 이외 40개 품목에 대해 인증을 획득했다.

장흥군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 실천농가에 대해 주요 농자재 100% 지원과 시업자 선정 시 친환경 인증농기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쌀 포장재 및 포장기계 지원, 친환경농업단지 제초매트 지원, 유기농쌀 생산경쟁력 지원, 친환경농업인 역량강화사업 추진 등 친환경농업 시책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강진칠량영농조합법인, 친환경 쌀 전문도정시설 준공 본격 가동



현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친환경농산물의 원료곡을 일반창고에서 고온기에 장기간 보관 시 해충 등 품질저하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저온저장시설을 구축함으

로써 연중 고품질 쌀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강진쌀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축사를

통해 "강진군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의 확대 및 생산 기공,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최첨단 친환경 벼 도정공장이 칠량면에 신축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깊은 사람들로 구성된 칠량영농조합법인이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혜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곡성군, 내년부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곡성군은 2019년 1월 1일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 재해와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 · 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폭발 · 화재 · 봉화, 강도, 농기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의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이하), 등 총 11종이다. 사고 사망 시에는 1천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지급한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은 곡성군 전군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기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어 편리하다. 군민안전보험의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기관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군은 향후 매년 재가입한다는 계획이다.

곡성=김광희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군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흙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화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방향